

# I.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문화 현상

## 1.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

○수능 Question: “~와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은?”

★Kye Point: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구분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이 끼어든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 사회현상

-사람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 자연현상

ex) ①일식 및 월식 → 요건 당연히 자연현상이지만요.

②일식 및 월식을 관측 → “관측”이란 단어 때문에 사회현상입니다.

관측은 분명히 사람이 한 행동이니깐요!

★“사회현상/자연현상의 특성

	법칙	보편/특수	특성	원리	인과 관계	가치
자연 현상	존재법칙	보편성	필연성	확실성의 원리	분명	물가치성
사회 현상	당위법칙	특수성	개연성	확률의 원리	불분명	가치 함축성

\*필연: “반드시 그러하다”

\*개연: “대개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물가치성: ‘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연 현상에는 가치라는 것이 없다는 의미.

추신) 밑의 글은 자연 현상/ 사회 현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적어 본 것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한 번 읽어보세요. 다시는 헛갈리지 않을 거예요!

Key Sentence: “만유 인력의 법칙(자연 현상)”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사회 현상)”

→ 밑의 내용 읽어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 문장입니다.

### 1) 자연현상(만유 인력의 법칙)

■ 만유 인력의 법칙 : “모든 물체는 반드시 서로 끌어당긴다. ”

“이것은 확실한 과학적 사실이다.”

- “모든”에서 보편성, “반드시”에서 필연성, “확실한”에서 확실성을 찾아낼 수 있지요.

- 그리고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자연 과학”이라는 것도 보너스예요.

■ 그리고 “과학 법칙”은 원래부터 있어왔던 “존재 법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업적은 언제나 “발견”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알아낸 것이니까요.

■ 그리고 또 하나, 뉴턴이 사과가 땅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거잖아요.

만유 인력 법칙 때문에(원인) 사과가 땅에서 떨어졌으니(결과) 인과 관계가 분명하죠!

### 2) 사회현상(공부해야 하는 학생 여러분)

■ “해야 한다”가 있으니 당위법칙입니다.

■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확률로 따지죠.(확률의 원리)

야구에서 타자는 안타를 칠 수도 못 칠 수도 있으니까 타율을 따지잖아요.

■ 공부도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사실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특수성의 원리!

- 공부하기 싫은 건 왜 그런지 모르겠죠?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인과관계가 불분명!
- 그리고 학생 여러분도 노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건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

2. 기능론 VS 갈등론

○수능 Question: “~를 보는 관점?”(특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을 때의 80~90%는 “기능론, 갈등론”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생각하세요!

★구분 방법(Kye Point): 주어진 진술의 현실 인식이 “긍정적인가?” , “부정적인가?”로 판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면 기능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면 갈등론

특징		기능론	갈등론
★전반적인 느낌	★★★현실 인식	긍정적	부정적
	성격	보수	진보
사회에 대한 시각	사회 변동에 대한 관점	-부정적 -일시적인 현상	긍정적
	사회 유지에 대한 관점	긍정적	부정적
	사회 갈등/문제에 대한 관점	-부정적 (병리적 현상) -일시적인 현상	-긍정적 (사회 발전의 원동력) -항상 있어왔던 일
	사회 문제의 원인	뭔가 하나의 요소	사회 전체
	사회 문제의 해결책	문제되는 요소 해결	사회 전체의 변혁
경제에 대해	좋아하는 경제 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분배 방식	차등 분배	균등 분배
	계층/불평등	긍정적(용인함)	부정적(매우 싫어함)
기타 특징		유기체론	사회 변동 설명에 적합
대표적인 나라		미국	프랑스

○ 이 표를 다 외워야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현실 인식이 기능론은 “긍정적”/ 갈등론은 “부정적”이라는 것만 확실히 잡으세요!★★★  
나머지는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제가 아래에 적어놓은 설명 읽으시면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옵니다!

1) 사회 변동에 대한 인식 차이

- 기능론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대로”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이고, 사회 변동을 싫어합니다.
- ◆갈등론은 사회를 “씩어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는 걸 바라겠죠.  
따라서 사회 변동을 좋아하고, 진보적입니다.

2) 사회 질서, 사회 유지, 사회 통합은 어느 쪽에서 강조할까요?

- 당연히 현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능론이겠죠. “이 좋은 사회”를 지키려 할거니깐요.  
지구를 지키는 슈퍼맨, 아이언맨, 세일러문 등은 모두 기능론자입니다. ㅋㅋㅋ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학교 교육, 사회 규범, 사회화 등도 같이 옹호하지요.
- ◆반면 갈등론에서는 학교 교육, 사회화를 부정적으로 본답니다.(애넌 현실이 다 부정적)  
학교 교육, 사회화는 지배 계층이 민중을 자기 말 잘 듣도록 세뇌하는 수단이라고 보죠.

3) 사회 갈등/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각각 어떻게 보나요?

-사회 갈등이란 건 뭔가 사회가 들썩들썩, 즉 사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능론은 싫어하고요(“이 좋은 사회”를 망칠 수 있는 위협이니까요.)

◆갈등론은 사회 갈등/사회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씩어빠진 사회”가 뭔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4) 사회 문제의 원인/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기능론은 뭔가 하나의 요소가 문제라고 보죠.(“다 좋은데, 요것만 문제야.”란 느낌)  
따라서 그 요소만 고치면 된다고 봅니다.

◆반면 갈등론은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 보기 때문에 사회 자체를 갈아엎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5) 자본주의/사회주의 및 분배, 사회 계층에 대한 시각

●기능론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현 체제인 자본주의를 옹호합니다.

자본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은 빈부 격차도 용인하는 거죠.

따라서 차등 분배를 주장하고요, 이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론은 현실의 자본주의를 싫어하죠.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좋아하겠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분배”, 즉 균등 분배를 좋아할 거구요.

불평등, 차별은 정말로 신경질적으로 싫어한답니다.

갈등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하는 말이 “지배집단”, “특정 집단”, “기득권층” 등의 말입니다. 이런 말에서 갈등론의 분위기를 짐작하시면 됩니다.

6) “유기체”라는 말은 기능론에서 쓰나요? 갈등론에서 쓰나요?

●유기체는 곧 “인체”를 일컫는 말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 몸은 뭔가 변화가 생기면 불편하지요. 그냥 “이대로”가 젤 좋아요.

따라서 유기체 얘기 나오면 90% 이상 기능론입니다.(그걸 비판하지만 앓는다면)

7)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적합한 이론은요?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설명을 잘 하기 마련이죠.

당연히 사회 변동을 좋아하는 갈등론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싫어하니까, 설명을 잘 못해요.

역시, 자기가 싫어하는 건 설명을 잘 못하기 마련이죠.

8) 기능론으로 돌아가는 나라와 갈등론으로 돌아가는 나라의 예를 들자면요?

●기능론 나라는 역시 자본주의의 대표, 미국입니다.

◆갈등론 나라의 대표는 혁명의 원조, 프랑스로요.

\*주의사항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점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기능론, 갈등론은 둘다 “사회”를 위주로 보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시각이 “사회>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 기능론은 개인에 외재하는 사회 구조의 강제력을 간과한다(X)

설명: 이 진술의 키 포인트는 “사회>개인(개인에 외재하는 사회 구조의 강제력)” 이니까요.

“사회 구조의 강제력을 간과한다”란 것은 “사회>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

즉, 미시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사회를 보는 4가지 관점에 대한 간략한 정리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교환 이론
현실 인식이 긍정적	현실 인식이 부정적	세상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	사람은 "이해관계" 따라 움직인다.

\*거시적 관점: "사회>개인" 으로 보는 관점 / \*미시적 관점: "개인>사회"로 보는 관점

4.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미시적 관점

- 현실 인식이 확실하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으면서, focus가 개인에 맞춰져 있어 기능론, 갈등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시적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교환 이론" 2가지입니다.
  - "이해득실"에 관련된 진술이 나오면 무조건 "교환이론"을 고르면 됩니다.
    - ex) 사람은 비용보다 보상이 더 클 때 행동을 한다.
  - 상징적 상호 작용론을 고르는 기준
    - ① "세상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진술이라면 무조건 선택하세요.
      - ex) 개인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 간다.
    - ② 행위 주체는 주어진 "상황"(생활 세계)을 능동적으로("주관"을 갖고) ~라고("의미", "상징" 부여) 생각한다.("인식", "해석", "규정", "정의")
      - 위 " "안에 들어간 단어가 나온다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ex) 사회 구성원은 상징에 부여된 의미를 공유한다.
    - ③ 개인을 중시하는 문장이면서 "이해득실"에 대한 말이 뚜렷하지 않다면 고르세요.
      - ex) 사람은 부모가 되면 아동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